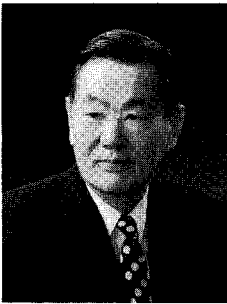


전환시대의 한국경제와 중견기업의 역할



백영훈 원장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전환시대의 정책패러다임

한국 경제는 지금 격변의 21세기를 가름하는 전환점에서 내일을 이끌어 가야 할 올바른 「경제이념」과 「규범」이 없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날의 왜곡된 부의 축적과정의 병폐로 말미암아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과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올바른 자본주의 가치관은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에 파묻혀 버렸으며 이는 오늘의 격변하는 경제환경하에서 치명적인 결림돌이 되고 있다.

변혁기에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시작이 동시에, 광역적으로 나타난다. 새롭게 경제 하려는 의지로 국민적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시기이다. 새롭게 경제하려는 의지는 새 시대에 필요한 경제에 대한 관심과 동기로서 경제관계를 제기하여 선택하고 결심하여 추진하며 실행하는 잠재능력이다. 그러므로 이 의지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규칙과 질서를 추진하는 지력이 된다. 이것이야말로 경제학의 기본

적인 윤리이며,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변혁기의 경제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척후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긴 안목에서 내일의 경제 운용전략을 새롭게 다져나가야 한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한 세대의 소명을 받은 주역들이 그 세대를 주도할 새로운 사회적 모델과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뜻에 따라 새로운 모습을 창조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또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세대가 인류의 물질문명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진취적 기상으로 기여했느냐 또는 소멸적 의지속에서 반전시켰느냐는 것은 그 세대를 이끌어 가는 한민족의 총체적 역량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다.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의 경제개혁이 담아야 할 내용의 큰 흐름의 물줄기를 두 가지 흐름으로 엮을 수 있다. 그 하나는 선진단계로 접어드는 우리경제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치열한 국제경쟁에 이겨낼 수 있도록 산업체질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하는 일이

며, 또 하나는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 위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그 체제와 질서를 재정비하는 일이다. 우선, 경제 능률화를 위한 산업구조 개혁은 우리경제가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새로운 도약단계에서 성장엔진을 전면적으로 개편보수해야 한다는 큰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과점과 재벌문제 등 산업조직의 개편문제를 위시해서 과잉투자, 중복투자 등 재원의 낭비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전문화와 계열화의 기틀위에서 중견기업의 성장기반이 공고히 갖춰질 수 있도록 그 체제의 정비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투자 우선의 지원태세의 확립과 더불어 기술, 경영, 인력수급면에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이 포괄적으로 재정비되지 않으면 안된다.

경제운영은 바로 이 두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가능한 당위의 수단을 찾아 나서야 한다. 불안의 배경은 복잡적이다.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회에 원인이 있고, 국외요인도 얽혀 있다. 따라서 불안을 해소할 방안은 그리 간단치 않다. 근본적이고 획일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감도 함께 얻어야 한다. 그런 시각의 처방을 정부가 제시하고 실행에 옮길 때 비로소 보다 폭넓은 차원에서 기업의욕의 희생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좀더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뜻에서 정부의 경제운용전략은 총체적으로 재편성되어야 한다.

“
**오늘의 경제개혁이
 담아야 할 큰 흐름을
 두가지 물줄기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우리경제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치열한 국제경쟁에
 이겨낼 수 있도록 산업체질을
 총체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 위에서
 자본주의 체제가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그 체제와 질서를
 재정비 하는 일이다.**
 ”

앞으로 경제는 보다 더 긴 안목에서 중심의 새로운 성장함수를 모색해야하며, 그것은 이미 다가온 고도산업 사회로의 혁신과 이를 통하여 성숙단계로의 이행을 추구할 수 있는 중견기업들이 포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야 한다.

오늘날 우리 경제정책의 수행과정에서 보면 경제운영에 있어서도 가치기준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마치 재벌이 국가경제 규범을 총체로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경제위상이 크게 변색되고 있다. 30대 재벌의 주력기업제품이 차지하는 경공업의 전체 출하액 비중은 40%에 달하고 있으며, 계열기업을 포함하면 거의 70%에 달하고 있다. 또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우리나라 전체의 주식을 현시가로 계산했을때, 그 중 어느 한 개의 특정 재벌이 13.7%를 갖고 있으며, 5대 재벌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 38%에 달하고 있다. 시장 지

배력면에서도 우리나라 재벌은 엄청난 재력으로 파고들고 있다. 시장 구조면에서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70%이상인 이른바 독과점형 시장이 품목수 기준으로 65%에 달한다.

재벌그룹이 이토록 독주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방만한 금융정책과 세제상의 특혜에서 비롯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재벌기업의 사업확장이 자가능력 이상의 금융차입이나 채무보증을 통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재벌기업의 재무구조 악화화한정된 금융자원의 편중배분이라는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물론 정부도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질서유지와 출자한도제한조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기활성화나 공기업민영화시책, 그리고 SOC관련 출자에 예의 조치 등 경제의 형평과 공정성의 유지보다는 효율과 증진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 우선되고 있다는 인상이 더욱 짙다.

자본주의 체제가 올바른 경제이념 위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성장기반이 고루 확산되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일본과 독일은 각각 5백만개 내외의 기업체가 있으며, 이는 전체인구의 약 5%에 달한다. 이른바 중산층의 안정세력으로 중견기업이 경제활동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통계에서 본다면, 우리경제는 지금 제조업체수가 약 6만개, 사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하여 약 100만개의 기업체가 있다. 선진국으로 진입을 위해선 앞으로 1백만 개가 넘는 기업이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이치에 서고 있다. 재벌독주시대를 막고 공정한 시민 자본주의로서 성숙된 경제규범과 질서가 뿌리내릴 때 우리경제는 성숙단계로 진입할 것이다. 우리경제는 지금 더욱 어려워져 가는 국제환경과 대내적인 취약요인을 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미래의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고 하겠으며, 이럴 때일수록 총체적인 경제체질의 혁신과 더불어 앞을 바라보는 정책발상의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한 나라의 경제발전은 순수한 이론적 근거와 총략적 모델에 의해서 규범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윤리와 경제적 조직기반에 의해서 지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내일을 바라보는 장기적 안목에서 오늘의 국가경제 운영전략을 총체적으로 재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중견기업의 새위상과 역할

새로운 발전단계를 가능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가경제의 총체적인 국제 경쟁력을 재구축 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국가적 명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기반의 핵심과 경제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일을 바라보는 신뢰성 있는 정치지도력의 발휘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역량이 중견기업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하는데 귀결된다고 하겠다. 낡은 경제규범과 제도에 얽매이면서 내일의 급격한 변화요인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할 때 우리경제는 스스로 자멸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적

인 위치에 서게된다. 권위와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낡은 관료주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한 누적된 부조리의 유산위에 안주하고 현상유지와 연명에 급급하고 있는 현상상황에서는 역사의 발자취가 새롭게 시작될 수 없다.

중견기업이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명확한 개념으로 규정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흔히 알려져 있는 30대 대기업, 또는 10대 재벌기업 그룹들과는 구분되고 또한 중소기업모범에서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주를 이탈한 상대적 개념에서 중간규모의 기업군을 지칭할 수 있다. 이들 기업들은 당초에는 비록 중소기업으로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창업이래 순조로운 발전과정을 거쳐 중소기업의 규모를 벗어났으나 규모면에서는 아직도 재벌기업군이나 또는 이른바 30대 대기업그룹에는 미달되는 중견기업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 중견기업들의 대부분은 개인기업으로서의 영역을 벗어나 주식시장에 상장된 건설한 공개기업들로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 과정에서 이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적 지원 체제면에서 거의 등한시되어 육성기능이 결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의 범주를 벗어난 이른바 중견 제조기업체 수는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을 포함하여 약 1,200개 내외 업체에 달하며 종업원이 전체 제조업상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 내외, 그리고 전체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생산액의 비중은 약 20%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와같이 경제발전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이른바 중견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태세가 확고히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제 우리경제는 역사적 도전에 앞서 새규범과 진리를 터득하는 산고를 치뤄야 한다. 튼튼하고 견실한 국민적 참여와 바탕으로서 새로운 경제적 울동, 즉 「믿음직한 국가적 경제기상」을 어떻게 구현 할 것인가는 우리경제에 당면한 최우선의 과제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성숙단계로 접어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는 민족의 역사적 소명으로서 재도약을 다짐하고 내일의 풍요한 경제상황을 열어가는 올바른 경제사상의 재정립에 귀착된다고 하겠다.

중견기업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견기업은 한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추적 기능으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국민적 참여와 생산적 「부(富)」의 축적기반을 확산하는 원동력이다. 한나라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귀착된다. 최대다수의 물질적 풍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중견기업인의 창출을 통해서 「부(富)」의 축적기능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은 스스로 독자적인 전문기업 영역에서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로서 국가적 자생력을 개척하는데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중견기업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한나라의 복지체제와 사회안정기반을 구축하고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

히, 우리나라와 같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빈부의 차이가 심한 나라일 수록 소득재분배와 고용의 창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이다.

넷째, 중견기업들은 거의 공개기업으로서 스스로 존립기반과 사회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의 원천으로서의 확실한 조세 기여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중견기업육성을 위한 특수성에 입각하여 다른 선진국들은 정책육성의 핵심을 중간규모의 안정과 확충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경제는 기존질서와 규범을 벗고 새롭고 참신한 대한국의 성장질서를 추구하는 새로운 설계와 국가전략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열려야 할 시점에서 서 있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재벌기업의 과도한 팽창을 막고 올바른 자본주의의 경

계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전환이 필연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① 대기업 중심의 금융메카니즘 단절시켜야

재벌기업의 과도한 팽창과 부조리의 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기업 중심의 금융메카니즘을 단절시켜 나가야한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기업의 자기 자본비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며 미국 40.4%, 일본 31.2%, 대만 50.5%에 비하여 우리나라 대기업은 23.8%로서 금융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금융메카니즘 위에서 재벌중심의 과도한 경제집중현상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없으면 물론, 자본주의체제가 대기업 중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독일에서는 금융차입으로 대기업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대출의 이자부담을 세법

상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한도를 자기자본의 3%이내로 정하고 있다.

② 명목주의에서 합리주의 세제로의 개혁 뒤따라야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지금까지의 명목주의 세제에서 합리주의 세제로의 대폭적인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기업회계면에서 세제상의 과도한 낭비요인을 인정해 주고 있는 나라는 없다. 예를 들면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감가상각비의 처리도 만일 3년 이내에 시설자금이나 기술충당금으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가 다시 세금으로 환수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이 비용으로 처리된 감가상각비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쓰이는 등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세법상 근원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③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규범 엄격히 시행해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규범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 과도한 광고경쟁, 상호출자에 의한 기업인수, 독과점 품목의 시장지배, 부동산 투기행위, 중소기업 영역에 대한 대기업의 침투, 중소기업으로부터의 인력스카우트 등 허다한 분야에 있어서 경제규모의 이점을 이용하여 공정경쟁질서를 파괴시키는 원천적인 부당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도록 국가적 규범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④ 소비자 대변기구의 기능 충실히 갖춰야

공정한 경제질서 안에서 자본주의체제가 올바른 시민의식 속에서 확실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숙된 시민참여 기구로서 소비자의 대변기구의 기능을 충실히 갖추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기구들은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고발의식을 높이고 국민의 올바른 생활규범을 지켜나가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는 시장에 있어서의 대기업의 독과점 행위와 과다 광고경쟁 등 소비자이익의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⑤ 중견기업인의 조직기반 확대해 나가야

중견기업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적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인의 조직기반이 확대돼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의 경제동우회를 위시해서 선진국에는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수많은 연합회와 이익집단의 연맹 등이 국가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조직되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결 론

21세기를 바라보는 격변시대에서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정책 취약성은 내일을 이끌어가는 경제운동상의 이념과 가치기준의 혼돈에 있다고 하겠다. U라운드와 WTO체제의 도입 등 가중되어 가는 개방화 압력과 OECD에의 가입 등 선진권의 경제권 진입을 서두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경제정책의 핵심을 「자율경쟁」과 「무간섭주의」라고 하는 자유방임적 사고의 틀이 지배적인 경향에 있으며 이와 같은 기본틀 위에서 경제지배력과 부의 왜곡된 축적과정은 무성하게 팽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왜곡된 경제질서 위에서 과연 성숙단계로의 경제체제의 이행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의 전환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한국경제가 올바른 자본주의 체제의 규범위에서 성숙경제권으로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경제주도력을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로서의 중견기업의 육성이 절실한 과제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나타난 근본적인 변화는 시관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 오랜 세월동안 얼룩진 근세사의 고리를 끊지 못한채 자학의 세월을 거듭해 왔던 우리의 눈에서 이제 미래를 설계하고 기획하는 안목이 생겼고, 미래를 낙관하는 태도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러한 국민적 의욕을 승화시키기 위해선 내일을 설계하는 계획기법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정부가 내

세우고 있는 낡은 도그마적 기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한 나라의 개발계획을 지표와 계수의 연장으로 보는 눈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러한 개발기법의 역기능 속에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사회욕구나 폭넓은 국민의 갈등의식을 수습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본질적 기능위에서 경제체질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주의는 고도의 합리성과 올바른 경제질서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사회는 전체적 시각에서 볼 때 허상과 허구속에 싸여져 있다.

성숙된 자본주의는 시민적 참여의 뒷받침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모든 정책이 국민의 화합을 이탈하고 독선과 권위주의에 파묻혀 있을 때 그 정책들은 관료주의의 일각에서 소멸되고 만다.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버림받고 허다한 소외계층에게 희망과 긍지를 심어 주는 참된 정책발상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 하나 하나가 스스로 경제현실을 바라보고 내일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그 안목이 보다 적극적이고 희망적일수록 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

끝으로 경제 정의 사회구현을 위해서는 개발들에 대한 부(富)의 세습, 부동산 투자, 상호출자, 상호보증, 문어발식 경영 등 왜곡된 부의 축적 과정을 근원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그 동안 경제의 양적성장과 더불어 나타난 국민 각층의 의식구조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사회에는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회구조에 있어 중산층

의 폭이 늘어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경제면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튼튼한 안정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더구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은 바로 중산층의 폭에서 좌우된

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늘어가고 있는 중산층이 착실한 생산기반 위에서 공동체적 일체감을 어떻게 갖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가 새시대를 열어가는 건실한 중산층을 낳

는 것이다. 이들 중산층은 새로운 의식구조 행동양식 아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각방면에 있어서의 여론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함과 아울러 경쟁력 있는 사회변동의 중핵층으로 되어가게 되는 것이다.

고객만족을 위한 방법

고객자신과 그 경쟁자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

고객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고객의 조직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일들에 대한 정보원이 되는 것 역시 현명한 일이다. 국내외에 있는 고객의 공장, 지점, 창고, 도·소매 판매점들을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기회이다. 참견꾼처럼 보이지 않게 주의하면서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고 현장에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알아내 보자. 그리고 그 정보를 당신의 고객에게 알려줘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들끼리는 오히려 서로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당신은 고객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외부 상담자이자 정보 공급자로서 당신은 '참호 밖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고객에게 알려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고객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경쟁자의 동향이다. 따라서 당신 고객의 경쟁회사 신규고용, 신가격정책, 신제품, 새로운 R & D 프로젝트, 신규취득, 새로운 공장과 현대화에 관한 소식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정보를 은밀히 알게 되면 즉시 이 소식을 문서로 고객과 그의 상사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문서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최초의 정보 제공자라면 그에 상응하는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을 고객이 알아도 손해볼 것은 없다. 오히려 그런 활동은 당신이 경쟁자들을 한 발 앞질러 나가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